

KCC, 중국 페인트 내수시장 공략

곤산 이어 10월12일 북경공장 준공 ... 자동차 및 PCM 도료 생산 주력

금강고려화학(KCC)이 중국 강소성 곤산공장에 이어 중국에서 두번째로 북경공장을 설립하고 10월12일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북경시 순의구 소재 북경공장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KCC 정몽진 회장을 비롯해 KCC 김춘기 사장, 정몽익 부사장, 정복동 전무 등 KCC 관계자들과 노재만 북경현대기차 총경리, 이평 순의구 구장 등이 참석했다.

KCC는 북경공장 설립에 대해 “중국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물량 확대와 북경의 현대·기아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에 따른 페인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경공장은 약 1만2000평 부지에 연건평 6600평 규모로 총 240억원이 투자됐으며, 2004년 7월부터 가동을 시작해 자동차 및 PCM 도료를 생산하고 있다.

KCC 북경공장 준공기념식(2004.10.12)



† 왼쪽부터 KCC 김춘기 사장, KCC 정몽진 회장, 이평 순의구 구장, 조여희 순의구 인민대위원회 주임

량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설비확충을 통해 2010년에는 생산능력을 자동차용 도료 1300만리터, PCM 도료 870만리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점차적으로 다양한 공업용·산업용 페인트를 양산함으로써 영업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KCC는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중국 내륙지역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판매확대 및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해 2008년까지 중국 내 페인트 생산기업 중 10위권으로 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10/13>